

## 6개월 영아에 대한 신체접촉 유형에서의 차이: 어머니 우울, 양육스트레스, 불안, 접촉에 대한 느낌, 그리고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김 수 정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곽 금 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어머니의 5가지 내적 변인에 따른 신체접촉 유형 간 차이와 5가지 변인 간 상관을 알아 보았다. 연구 대상은 전국적인 규모로 6개월 된 영아를 가진 어머니 450명이다.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불안, 접촉에 대한 느낌 그리고 자아개념 등에 따라 신체접촉 유형에서의 차이가 분석되었다. 우울, 양육 스트레스, 불안 성향이 낮은 집단의 어머니들은 높은 집단의 어머니들보다 다양한 신체접촉을 자주 사용했다. 신체접촉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과 자아개념이 높은 어머니들은 낮은 어머니들보다 다양한 유형의 접촉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즉 행동의 강도가 큰 거친 접촉 유형과 양육적인 신체접촉을 양육현장에서 함께 사용했다. 변인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자아개념과 접촉에 대한 느낌이 그리고 우울, 스트레스, 불안 간에, 각각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자아개념과 접촉에 대한 느낌 각각은 우울,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은 신체접촉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자아개념이 높을 때, 영아기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접촉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어머니의 자아개념을 높여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양육 현장에 중요한 쟁점으로 제안될 수 있다.

주요어 : 신체접촉 유형, 우울, 양육스트레스, 불안, 접촉에 대한 느낌, 자아개념

영아는 신체접촉을 통해 일차적으로 세상  
과 상호작용 한다. 엄마와의 신체접촉은 어린  
영아가 세상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  
는 가장 일차적인 도구로써 영아의 전반적인

본 연구는 2002년-2005년까지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한 기초학문육성과제(KRF-2002-074-HM 1006)의 일부이다.  
교신저자: 곽금주, E-mail: kjkwak@snu.ac.kr

신체 심리적 발달에 토대가 될 수 있다. 특히 어린 영아는 신체접촉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엄마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영아기의 신체접촉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특징은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인지적, 그리고 신체적 발달을 포함하여 영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신체접촉의 중요성을 시사해 왔다 (Greenough, 1990; Stack, 2001).

엄마의 정서는 신체접촉을 통해 영아에게 의사전달 된다. 연구에 의하면 피부와 정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Montagu, 1986). 예를 들면, 공포 상황에서는 안면이 하얗게 질리게 되며, 당황 할 때에는 붉게 된다. 이처럼 감각체계로써 그리고 의사전달의 수단으로써 신체접촉은 부모와 영아간의 관계에 중요하며, 이것이 의사전달 의미를 초래하기 때문에 영아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김수정, 박금주, 2003). 엄마는 생의 초기부터 영아를 안고 잠재우기도하고, 달래서 아기의 불안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이전의 엄마-영아 간 상호작용 연구는 엄마-영아 간 행동에 대한 민감성에 초점을 두고 행동 규제(regulation)에서 신체접촉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접촉 행동은 모-영아 간 정서적 의사전달의 통합적 특성이 되며, 더 높은 수준의 신체접촉은 긍정적인 안전 애착과 관련됨이 밝혀졌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애착연구가들은 영아의 안전감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반응적이고 이용 가능한 환경의 중추적 특성으로써 부모-영아의 신체적 접촉 특징을 언급했다(Ainsworth et al., 1978; Bolwby,

1973). Main(1990)에 의하면 애착 대상과의 신체적 접촉은 아기가 안전하고 안정된다는 “궁극적인 신호”이다. 엄마와 친밀한 신체접촉을 통해 영아는 고통이나 불편함을 대처할 수 있게 된다(Grossman, Grossman, Gottfried, Suess, & Unzner, 1985).

영아를 둘러싼 환경의 세부 특성은 영아가 신경 행동적 발달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도 촉각적 경험이 영아의 초기 발달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신체접촉과 연합된 수용기와 신경통로는 영아기에 발달해야 될 첫 번째 요인이며, 아기의 최초의 자극은 돌봄에서 받은 신체접촉을 통해서 형성된다(Myslivecek, 1991; Turkewitz & Kenny, 1982). 결과적으로 신체접촉은 영아기, 뇌의 하드웨어 발달에 중추적이다. 동물연구에서 나온 증거에 의하면 초기의 촉각적 경험은 대뇌피질의 크기에 영향을 주고 뇌의 신경세포간의 연결 형태와 수(number)에 영향을 줄 수 있다(Greenough, 1990; Nudo, Milliken, Jenkins, & Merzenich, 1996).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촉각적 환경이 뇌 발달을 촉진시킨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동물의 신경세포의 더 많은 연결은 풍부한 환경에서 조성되며(Greenough, Hwang, & Gorman, 1985), 학습이 기억기능에 원인이 되는 많은 유전인자와 신경세포를 증가시킨다(Kempermann, Kuhn, & Gage, 1997). 따라서 신생아의 뇌는 엄마와의 신체접촉으로부터 오는 감각과 운동 자극을 통해 발달한다(Larsson, 1994).

영장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원숭이 엄마에 의한 양육적 신체 보살핌은 정서사회적 유능성, 특히 기질적으로 취약한 새끼 원숭이의

발달에 결정적일 수 있다(Suomi, 1990). 이런 어린 원숭이가 양육적인 신체접촉을 받지 못할 때, 막대한 행동적 문제를 발달시키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성공할 또는 사회적으로 적응할 기술이 결핍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생의 초기의 신체적 확대(Kollo, 1992)와 신체적 체별을 경험한 아동의 정신적 병적 상태가 날로 높아진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영아를 포함해 이런 아동들은 근본적인 부적 정서와 최소한의 정적 정서를 보이기 시작하며(Schore, 1998), 성장함에 따라 또래와 돌보는 사람에 대해 신체적으로 공격적이 되어간다(Main & George, 1985). 신체적 확대는 완전히 변형된 신경 정신의학적 증세, 특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며, 자가 파괴적 장애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며(Green, 1998), 체별적 신체접촉은 실제로 신경 세포의 구조와 변연계의 신경 화학적 순환, 사회 정서적 경험을 처리하는 체계 등을 변경시킨다(Perry & Pollard, 1998; Schore, 1998).

Weisse와 그의 동료들에 의하면(2001) 생후 3개월-8개월 때의 엄마의 거친 신체접촉은 이후 2-3세 된 영아의 정서적 행동 문제에 영향을 주었다. Hertenstein과 Campos(2001)도 엄마의 신체접촉이 대상을 향한 12개월 된 영아의 도구적 행동을 조절해 줄 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 배열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런 부정적인 신체접촉 유형은 스트레스나 우울 상태의 엄마에게서 비교적 빈번히 일어난다(Field, Healy, Goldstein, & Guthertz, 1990).

따라서 최근 연구는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심오하게 영향을 주는 부모와 아동 간 애정 어린 안락한 피부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Walsh, 1991). 부드럽고 온화하게 붙잡아 주는 신체접촉은 안전 예감과 정서적 안전에 중추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Ainsworth et al., 1978; Kaitz, Lapidor, Bronner, & Eidelman, 1992).

그렇다고 부드럽고 애정적 신체접촉이 생득적으로 유익하다는 확증은 조심스런 주장이다. 만약 온화하고 애정적인 신체접촉이 바람직하지 않은 순간에 사용되거나, 너무 지나치게 자주 사용되면, 애착 발달에 부정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적절한 신체접촉 유형을 사용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의 민감성이나 또 다른 내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영아가 원하는 여러 가지 신호에 대해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어머니의 민감성은 자녀의 안전 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최순영, 김수정, 1995). 영아가 원하는 적절한 자극을 변별할 수 있는 민감한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필요한 자극을 신체접촉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전달할 수 있으므로, 영아는 그런 어머니의 보살핌에 정서적 만족감 또는 안정감을 형성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Weinberg와 Tronick(1994)은 6개월 된 영아와 어머니가 상호작용 하는 동안 어떤 유형의 신체접촉이 얼마나 일어나는 가를 조사했다. 엄마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아기를 쓰다듬거나, 안거나 울동적인 신체접촉 했으나, 간질이기와 뽀뽀하기는 많이 하지 않았다. 이런 모든 행동은 정서적으로 긍정적일 때 나타난다. 찌르기와 꼬집기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접촉 유형으로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와 같이 신체접촉의 유형에서 차

이가 있다면, 신체접촉 각각의 유형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엄마와 6개월 된 영아와의 상호작용 동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신체접촉 유형을 조사한 또 다른 연구(Tronick, 1995)에 의하면, 쓰다듬기, 울동적 신체접촉, 그리고 잡기는 간질이기와 뽀뽀하기가 뒤에 수반되나, 찌르거나 꼬집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쓰다듬기와 찌르기/간질이가 2개월-4.5개월 된 영아의 행동에 주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쓰다듬기를 받은 영아는 간질이거나 찌르기를 받은 영아보다 더 많이 미소 짓고, 덜 울었으며 이마를 덜 찌푸렸다(Peláez-Nogueras, Field, Gewirtz, Cigales, Gonzalez, Sanchez, & Richardson, 1997).

간질이기는 영아를 웃기려고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접촉 유형이나(Stack & Lepage, 1996), 쓰다듬기보다 영아에게 정적 정서를 덜 유발시키는 접촉 유형인 것 같다. 이처럼 어린 영아에게는 간질이기보다는 쓰다듬는 접촉 유형이 더 긍정적 효과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엄마-영아 상호작용에서 특히 어린 영아의 경우는 간질이기보다는 쓰다듬기가 더욱 효과적인 접촉 유형임이 시사된다.

엄마의 내적 상태에서 나타나는 신체접촉 유형을 분석한 연구(Tronick, 1989)에 의하면, 부정적인 신체접촉의 유형은 스트레스나 우울 상태의 엄마에게서 비교적 빈번히 일어난다. 부모의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불안과 행동 간의 관계성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우울증의 증세를 더 많이 보고한 엄마가 자녀를 더 많이 접촉했다(Fergus, Schmidt & Pickens, 1998). 그러나 그들은 쿡쿡 찌르거나, 간질이는 접촉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5-6개월 된 영아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가락을 물거나, 손뺌을 치기도 했다(Fergus, Pickens, & Schmidt, 1998).

다른 연구에서도(Cohn & Tronick, 1989) 우울한 엄마는 자녀를 찌르는 신체접촉을 더 많이 사용했다. 우울한 엄마는 우울하지 않은 엄마보다 상호작용 동안 영아를 더 찌르고, 간지름을 태우고, 쥐어박는 신체접촉을 더 많이 했다(Stepakoff, Beebe, & Jaffe, 2000).

3개월 된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Field, et al., 1990), 우울한 어머니들은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상호작용 동안 아기를 찌르거나, 간질이고 쥐어박는 등의 접촉 유형을 더 자주 했다.

우울한 어머니들도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나, 상황과 맥락에 적절한 접촉 유형을 사용하는 기술이 부족한 것 같다. 아마도 우울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필요한 자극이 무엇인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할 수도 있다.

최근 연구(Herrera, Reissland, & Shepherd, 2003)에서 우울한 엄마는 6개월-10개월 된 영아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영아를 들어 올리는 등의 강도 높은 접촉을 더 많이 했다.

이처럼 우울한 엄마들은 신체접촉을 통해 자신의 내적 상태를 영아에게 전달한다. 물론 같은 접촉 유형이라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겠지만 우울한 엄마들은 일반적으로 영아의 손가락을 물거나, 찌르거나 쥐어박는 등의 신체접촉 유형을 사용했으며, 영아의 행동을 제지시키려고 영아를 들어 올리는 등의 거친 접촉 유형도 많이 사용했다. 또한 정적 정서를 유발시키기 위해 간질이기를 했으나,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기술이 부

족한 것 같았다.

한편, 엄마가 아동기 때 받은 신체접촉과 관련된 경험의 역사가 자녀를 신체접촉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George & Solomon, 1996; Steele, Steele & Fonagy, 1996). 어려서 받은 신체접촉에 대해 느끼는 엄마의 내적 상태는 내적 작동 모델의 한 영역을 구성한다. 가령, 부정적인 신체접촉에 대한 경험은 접촉 위안에 대한 욕구가 생길 때, 애착 대상과의 신체 접촉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발달시킬 수 있다. 그런 느낌은 애착과 관련된 상호작용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엄마가 받은 신체접촉에 대한 느낌은 자녀의 안전 애착에 영향을 주는 신체접촉 사용에 실제적인 영향을 준다(Weiss, Wilson, Hertenstein, & Campos, 2000).

엄마의 신체접촉은 영아-엄마 간 상호작용의 중추적인 의사전달의 통로로써(김수정, 광금주, 2003), 애착과 관련된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특히 신체접촉 유형은 안전 애착 형성에 영향을 준다(Leyendecker, Lamb, Fracasso, & Scholmerich, 1997; Network, 1997). 무엇보다도 신체접촉은 엄마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으므로, 영아의 안전 애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 유형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유발될 수 있는가에 대한 탐색은 양육 현장에 새로운 차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광금주와 김수정(2004)은 3-36개월 된 영아를 가진 어머니 980명을 대상으로, 어머니들의 우울,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영아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 신체접촉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

하면 어머니의 내적 상태가 자녀에게 하는 접촉 유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서도 안전 애착에 영향을 주는 부드럽고 애정 어린 접촉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안정적인 심리적 상태에 있는 어머니들은 우울이 높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고 있는 어머니들 보다 양육적 신체 접촉 유형 중, 뽀뽀하기, 쓰다듬기, 그리고 마사지 등의 친근한 접촉 유형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3개월-36개월 된, 영아에 대한 엄마의 접촉 유형을 알아 본 것으로, 월령에 따라 접촉 유형에서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개월 된 영아를 대상으로 접촉 유형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략 생후 6개월 정도가 되면, 엄마에 대한 애착형성이 시작되어, 낮가림이나 격리 불안이 나타나는 시기이며, 엄마의 신체접촉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Stack & LePage, 1996), 적어도 의사전달적 기능으로서의 신체접촉 유형들을 탐색할 수 있는 발달 시기로서 많은 선행 연구(Fergus, Pickens, & Schmidt, 1998; Herrera, et al., 2003; Weinberg & Tronick, 1994)에서 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어머니들의 신체접촉 유형을 조사 했다.

선행 연구들(광금주, 김수정, 2004; 김수정, 광금주, 장유경, 성현란, 심희옥, 2003)에 의하면 한국 엄마들은 지역적인 특색이나 내적인 심리상태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애정 어린 양육적 신체접촉을 주로 많이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경향이 한국 엄마들의 일반적인 경향인가에 대한 검증차원

에서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내적 변인과 접촉 유형 간 관계를 알아보고,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은 또 다른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첫째로, 기존의 연구(곽금주, 김수정, 2004; Fergus, Schmidt & Pickens, 1998; Field, et al., 1990; Stepakoff et al., 2000; Herrera, et al., 2003)에서 살펴본 엄마의 내적 변인 중,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여 우울이나 스트레스 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신체접촉 유형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고,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것이다. 둘째로, 선행연구에서 알아보지 않은 엄마의 불안 정도에 따라 신체 접촉 유형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볼 것이다. 셋째로, 엄마가 경험한 신체접촉에 대한 개인적 역사가 접촉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 볼 것이다. 신체접촉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부정적인지 또는 긍정적인 지에 따라 신체접촉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엄마의 자아 개념은 자녀 양육 전반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데, 어떤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자아개념과 신체접촉 유형 간 비교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엄마의 자아개념이 높거나 또는 낮은 가에 따라 접촉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는 가를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양육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엄마의 내적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여 부모 교육의 유용한 자료를 제안해 보고자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전국적으로 사회 경제적 배경이 다양한 6개월 된 영아를 가진 총 450명의 엄마들이다 (이 중 서울·경기: 260명, 영남: 130명, 호남: 60명). 연구 대상자들은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모집되었다. 각 지역 별로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무선으로 선정하여 참여 대상자를 모집했고,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참가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신체접촉을 묻는 질문지와 엄마의 내적 변인을 묻는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신체접촉에 대한 질문지는 연구자가 기존 연구(김수정 등, 2003)에서 나온 결과를 근거로 접촉에 대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첫째로, 선행 연구에서 나온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39개의 접촉 유형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가에 대해 개방식으로 답하도록 질문했다. 둘째로 엄마의 내적 변인인 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 자아개념, 신체접촉에 대한 개인적 느낌 등은 다음과 같은 질문지를 통해 측정되었다.

우울(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이 도구는 Beck, Ward, Mendelson, Mock 및 Erbaugh(1961) 등이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21문항으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미향(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BDI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진술을 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각 문항의 점수 범위는 0점~3점으로 총점은 0점~63점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본 연구에 사용된 BDI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 으로 나타났다.

**불안(BAI: Beck Anxiety Inventory):** 이 검사는 Beck, Epstein, Brown, 및 Steer(1988) 등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불안의 심각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검사이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수균(1996)의 논문에서 사용된 것을 사용하였다 피검사자는 오늘을 포함해서 한 주 동안 불안을 경험한 정도를 4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BAI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PSI: Parenting Stress Index):**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측정은 박응임(1990)의 연구에 사용된 Abidin(1990)이 개발한 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영역 요인과 부모 영역 요인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된 48문항 설문지이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영역 요인에 해당되는 22개의 문항만 사용되어졌다. 각 문항의 점수 범위는 1점~5점이며, 높은 점수로 갈수록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 이 척도는 조결자의 논문(1993)에서 사용된 것으로, Rosenberg가 자아에 대한 존중 정도와 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자아측정 도구인 10문항과 최정훈(1972)이 개발한 지각향상 검사도구의 내용

중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에 대한 20개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1점은 절대 부정, 5점은 절대 긍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자아개념을,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존중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로 나타났다.

**신체접촉에 대한 개인적 느낌:** 이 질문지는 신체접촉에 대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묻는 내용으로, 선행 연구(김수정 등, 2003; Weiss, Wilson, Hertenstein, & Campos, 2000)를 참고로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문항은 총 22개의 문항으로, 신체접촉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을 묻는 8개 문항, 가정환경에서 경험한 접촉에 대한 느낌을 묻는 5개 문항, 신체접촉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묻는 4개 문항, 자녀에 대한 신체접촉을 묻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예'는 2점, '아니오'는 0점으로 처리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접촉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인 것으로, 낮을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신체접촉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6$ 으로 나타났다.

#### 실시절차 및 검사자 훈련

2003년 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 가정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훈련받은 검사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엄마의 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 자아개념을 묻는 질문지는 즉시 수거해 오고, 신체접촉을 묻는 질문지는 2주 후에 우편으로 받았다

## 자료처리 방법

질문지 중 신체접촉에 대한 질문지는 450개의 질문지 중 299개만이 회수되었다. 연구자가 제시한 접촉 유형 39가지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가에 대한 비율이 분석되었다. 39가지 신체접촉 유형은 17가지의 상황에서 사용되었다. 이 17가지 중, 노래를 불러주는 상황에서는 극소수의 어머니들만이 접촉을 하였으므로, 분석에서 제외시켜, 총 16가지 사용되는 접촉 유형을 분석하였다.

노는 상황, 달래는 상황 및 장난치는 상황에서는 많은 종류의 접촉 유형이 사용되어서, 지면에 일일이 다 정리하는 것이 무리일 것 같아 적어도 10% 이상 사용되는 접촉 유형만을 정리하였다. 나머지 13가지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사용된 접촉 유형을 모두 정리하였다.

엄마의 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는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의 총점에서 상위 30% 내에 속한 집단은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하위 30% 내에 속한 집단은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자아개념 과 신체 접촉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지에서도 변인들의 총점에서 상위 30% 안에 속하는 엄마들은 높은 집단으로, 하위 30% 안에 속한 엄마들은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로 분석 하였다.

## 결 과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어머니의 최소 연령은 20세로 2명,

최고 연령은 45세로 1명이 있었다. 학력에서는 최하 학력은 중졸로 4명이, 최고 학력은 대학원이상으로 29명이나 되었다. 경제 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12명, 500만원 이상이 25명이었다.

표 1. 어머니의 연령, 학력 및 경제 수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비율(%)
연령	20-29세	41.9
	30-39세	55.8
	40-45세	1.8
	무응답	0.5
	계	100.0
학력	중졸	2.7
	고졸	27.3
	전문대졸	25.1
	대졸	36.6
	대학원이상	7.1
	무응답	1.2
	계	100.0
경제수준	100만원미만	2.9
	101-200만원	34.4
	201-300만원	30.6
	301-400만원	16.3
	401-500만원	8.0
	500만원 이상	6.1
	무응답	1.7
	계	100

일하는 상황에서는 업기 이외에 거의 어떤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 책을 읽어주는 상황에서는 신체접촉을 별로 하지 않아서, 사용된 3 가지 신체접촉 유형을 모두 제시했다(표 2 참조).

표 2. 상황에서 사용되는 신체접촉 유형의 비율

상황	유형	비율(%)
노는 상황	간질이기	23.9
	배 위에 앉히기	23.9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21.2
	들어올렸다 내리기	20.2
	다리에 올려 비행기 태우기	20.2

	업기	46.8		찰싹 때리기	7.7
	꼭 안기	41.1		머리 쓰다듬기	6.7
	안고 흔들기	28.8		볼 쓰다듬기	6.4
	들어올렸다 내리기	25.9		코 만지기	6.1
	흔들기	25.3		물기	5.1
달래는 상황	찰싹 때리기	18.2		마사지/지압	22.2
	등/배 만지고 토닥토닥하기	16.8	잠에서 깬 상황	뽀뽀하기	11.1
	끌어안고 뛰어 다니기	15.8		안고 뒹굴기	5.7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14.5		볼/얼굴대고 비비기	5.4
	살포시 안기	13.5		꼭 안기	5.1
	배위에 앉히기	13.1		뽀뽀하기	23.6
	뽀뽀하기	11.1		볼 쓰다듬기	22.2
	등/배 만지고 토닥토닥하기	49.2		꼭 안기	18.2
	머리 쓰다듬기	38.7		볼/얼굴 비비기	17.2
	살포시 안기	37.4		머리 쓰다듬기	16.2
	흔들기	24.2		영당이 두드리기	13.1
잠깨우는 상황	안고 흔들기	23.2	살짝 꼬집기	12.5	
	끌어안고 다니기	20.5	얼굴 맞대고 코 비비기	12.1	
	몸을 긁어주기	20.5	물기	10.8	
	꼭 안기	20.2	이마대고 비비기	9.1	
	영당이 두드리기	17.8	살포시 안기	6.7	
	뽀뽀하기	16.2	간질이기	57.2	
	볼 쓰다듬기	16.2	들어올렸다 내리기	49.2	
	손발 만지기	12.5	몸에 입대고 바람불어 소리내기	46.5	
	마사지/지압	7.4	배 위에 앉히기	45.5	
		꼭 안기	13.1	얼굴 맞대고 코 비비기	42.8
아픈 상황	머리 쓰다듬기	8.4	다리에 올려 비행기 태우기	41.6	
	등/배 만지고 토닥토닥하기	7.1	안고 빙글빙글 돌기	40.1	
	볼 쓰다듬기	6.4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37.7	
	살포시 안기	6.4	이마대고 비비기	37.4	
	뽀뽀하기	5.1	물기	36.0	
	머리 쓰다듬기	4.4	목마/무등 태우기	31.3	
칭찬하는 상황	영당이 두드리기	4.0	볼/얼굴 대고 비비기	30.0	
	볼 쓰다듬기	2.4	찌르기	30.0	
	찰싹 때리기	14.1	흔들기	29.3	
야단을 치거나 주의를 주는 상황	잡아끌기	6.7	안고 뒹굴기	27.6	
	움켜잡기	4.7	끌어안고 뛰어 다니기	27.6	
	살짝 꼬집기	3.0	코 만지기	25.9	
	손발 만지기	9.8	뽀뽀하기	25.6	
수유 상황	귀 만지기	9.4	안고 흔들기	22.6	
	머리 쓰다듬기	7.7	살짝 꼬집기	21.5	
	볼 쓰다듬기	5.4	볼 쓰다듬기	21.2	
	마사지/지압	40.7	손발만지기	20.9	
목욕/기저귀를 갈아주는 상황	영당이 두드리기	38.7	몸으로 미끄럼 태우기	18.9	
	몸에 입대고 바람불어 소리내기	19.9	발등에 올리고 걷기	17.2	
	귀 만지기	14.5	말 태우기	15.8	
	등/배 만지고 토닥토닥하기	9.4	물구나무 태우기	14.8	
장난치는 상황	머리 쓰다듬기	4.4			
	영당이 두드리기	4.0			
	볼 쓰다듬기	2.4			
	찰싹 때리기	14.1			
	잡아끌기	6.7			
	움켜잡기	4.7			
	살짝 꼬집기	3.0			
	손발 만지기	9.8			
	귀 만지기	9.4			
	머리 쓰다듬기	7.7			
볼 쓰다듬기	5.4				

	움켜잡기	14.5
	마사지/지압	11.8
	살포시 안기	10.4
	엉덩이 두드리기	10.1
일상적인 상황	뽀뽀하기	22.6
	꼭 안기	11.8
	살포시 안기	10.4
	불 쓰다듬기	8.1
	머리 쓰다듬기	6.7
누워있는 상황	손발 만지기	20.2
	불/얼굴대고 비비기	11.8
	귀 만지기	8.4
	코 만지기	7.7
	얼굴 맞대고 비비기	6.7
일하는 상황	업기	14.8
TV를 보는 상황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10.4
책을 읽어주는 상황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4.7
	배 위에 앉히기	0.7
	손발 만지기	0.3

### 우울 정도에 따른 접촉 유형에서의 차이

본 연구는 무작위로 추출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울 성향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신체접촉 유형에서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것이다. 우울 성향이 낮은 집단의 어머니들은 하위 점수에서 26.6% 범위 내에 있으며, 우울 성향이 높은 집단의 어머니들은 상위 점수에서 28.6% 범위 내에 속한 어머니들이다(표 3).

표 3. 우울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 점수

우울정도	N	최고점수	최저점수	평균	편차
낮은 집단	79	25	20	23.28	1.395
높은 집단	85	59	31	35.67	5.116

우울이 낮은 어머니들이 높은 어머니들보다 39가지 접촉 유형 중 6가지 접촉을 더 자주 사용하였다. 즉 머리 쓰다듬기, 엉덩이 두드리기, 얼굴 맞대고 코 비비기, 손발 만지기에서 차이를 보였고, 이마대고 코 비비기, 안고 흔

들기에서만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했다(표 3-1).

###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접촉 유형에서의 차이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접촉 유형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 속하는 엄마들은 81명으로 총 점수에서 상위 27.3% 범위 내에 있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엄마들은 80명으로, 총 점수에서 하위 26.9% 범위 내에 속한 어머니들이다(표 4).

표 4.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 점수

스트레스	N	최고점수	최저점수	평균	편차
낮은집단	81	103	61	90.41	10.403
높은집단	80	171	122	133.44	9.301

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들이 높은 어머니들보다 39가지 유형 중, 4가지 접촉 유형을 더 자주 사용하였다. 즉 들어 올렸다 내리기에서 차이가 있었고, 흔들기는  $p < .01$  수준에서, 마사지/지압하기와 안고 흔들기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했다(표 4-1).

### 불안에 따른 접촉 유형에서의 차이

불안 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접촉 유형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불안 성향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어머니들은 81명으로, 총 점수에서 상위 27.3% 범위 내에 있으며, 불안 성향이 높은 집단의 어머니들은 84명으로, 총 점수에서 하위 28.3% 범위 내에 속한 어머니들이다(표 5).

불안 성향이 낮은 어머니들이 높은 어머니들보다 39가지 유형 중 4가지 접촉을 더 자주 사

용하였다. 즉 코 만지기 유형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 마사지/지압하기, 이마대고 비기기, 안고 흔들기에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했다(표 5-1).

표 3-1. 우울정도에 따른 접촉 유형 간 차이

접촉 유형	집단		Chi-Square Test		
	낮은 집단	높은 집단	$\chi^2$	자유도	유의도
뽀뽀하기	97.5	95.3			.683
볼 쓰다듬기	92.4	91.8	.023	1	.879
머리 쓰다듬기	97.5	90.6	3.385	1	.066*
들어올렸다 내리기	94.9	94.1			1.000
살짝 꼬집기	50.6	50.6	.000	1	.995
간질이기	88.6	91.8	.464	1	.496
꼭 안기	93.7	91.8	.219	1	.640
살포시 안기	91.1	90.6	.015	1	.903
흔들기	82.3	78.8	.311	1	.577
찌르기	44.3	47.1	.125	1	.723
움켜잡기	50.6	41.2	1.475	1	.225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87.3	82.4	.789	1	.374
마사지/지압	93.7	87.1	2.033	1	.154
영덩이 두드리기	98.7	91.8			.065*
물기	67.1	72.9	.669	1	.413
안고 빙글빙글 돌기	68.4	69.4	.021	1	.884
발등에 올리고 걷기	44.3	41.2	.164	1	.686
찰싹 때리기	39.2	51.8	2.588	1	.108
잡아끌기	49.4	44.7	.357	1	.550
입기	89.9	85.9	.609	1	.435
등/배 만지고 토닥토닥 하기	93.7	92.9	.035	1	.852
얼굴 맞대고 코비비기	87.3	76.5	3.238	1	.072*
이마대고 코 비비기	77.2	62.4	4.268	1	.039*
목마 태우기/무릎 태우기	58.2	54.1	.281	1	.596
손발 만지기	94.6	87.1	3.058	1	.080*
배 위에 앉히기	96.2	90.6	2.036	1	.151
볼 얼굴 대고 비비기	87.3	83.5	.476	1	.490
귀 만지기	82.3	72.9	2.043	1	.153
끌어안고 뛰어 다니기	65.8	57.6	1.157	1	.282
코 만지기	77.2	68.2	1.658	1	.198
다리에 올려 비행기 태우기	74.7	74.1	.007	1	.934
물구나무 태우기	35.4	34.1	.032	1	.859
몸에 입대고 바람불어 소리내기	89.9	88.2	.112	1	.737
말 태우기	21.5	24.7	.234	1	.629
몸으로 미끄럼 태우기	27.8	29.4	.049	1	.825
안고 흔들기	82.3	67.1	4.978	1	.026*
안고 뒹굴기	62.0	56.5	.523	1	.470
몸을 긁어 주기	54.4	47.1	.890	1	.345
꼭 쥐기	50.6	47.1	.209	1	.647

\*  $p < .05$ , \*\*  $p < .01$ , \*\*\*  $p < .001$

**신체접촉에 대한 개인적 느낌에 따른 접촉 유형에서의 차이**

접촉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

적인 집단에서의 접촉 유형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접촉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인 집단에 속하

4-1.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접촉 유형 간 차이

접촉 유형	집단		Chi-Square Test		
	낮은 집단	높은 집단	$\chi^2$	자유도	유의도
뽀뽀하기	98.8	96.3			.367
볼 쓰다듬기	93.8	93.8			1.000
머리 쓰다듬기	96.3	91.3			.210
들어 올렸다 내리기	98.8	92.5			.064*
살짝 꼬집기	59.3	48.8	1.790	1	.181
간질이기	93.8	95.0			1.000
꼭 안기	97.5	92.5			.167
살포시 안기	95.1	87.5	2.899	1	.089
흔들기	92.6	76.3	8.195	1	.004**
찌르기	46.9	47.5	.006	1	.941
움켜잡기	50.6	41.3	1.422	1	.233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88.9	86.3	.258	1	.612
마사지/지압	95.1	85.0	4.553	1	.033*
엉덩이 두드리기	98.8	95.0	1.896	1	.168
물기	71.6	70.0	.050	1	.823
안고 빙글빙글 돌기	72.8	67.5	.548	1	.459
발등에 올리고 걷기	42.0	37.5	.337	1	.562
찰싹 때리기	40.7	52.5	2.237	1	.135
잡아끌기	46.7	52.5	.502	1	.478
입기	86.4	87.5	.041	1	.839
등/배 만지고 토닥토닥하기	93.8	93.8			1.000
얼굴 맞대고 코 비비기	86.4	83.8	.226	1	.634
이마대고 비비기	75.3	70.0	.571	1	.450
목마 태우기/무릎 태우기	55.6	55.0	.005	1	.943
손발 만지기	93.8	87.5	1.907	1	.167
배위에 앉히기	92.6	90.0	.341	1	.559
볼/얼굴 대고 비비기	87.7	86.3	.070	1	.791
귀 만지기	81.5	75.0	.994	1	.319
끌어안고 뛰어다니기	64.2	53.8	1.816	1	.178
코 만지기	77.8	70.0	1.263	1	.261
다리에 올려 비행기 태우기	71.6	80.0	1.545	1	.214
물구나무 태우기	34.6	36.3	.050	1	.823
몸에 입대고 바람불어 소리내기	91.4	88.8	.306	1	.580
말 태우기	25.9	15.0	2.948	1	.086
몸으로 미끄럼 태우기	27.2	27.5	.002	1	.961
안고 흔들기	85.2	71.3	4.594	1	.032*
안고 뒹굴기	60.5	61.3	.010	1	.922
몸을 긁어주기	55.6	51.3	.300	1	.584
꼭 쥐기	51.9	47.5	.305	1	.581

\* $p < .05$ , \*\* $p < .01$ , \*\*\* $p < .001$

는 엄마들은 89명으로, 총 점수에서 상위 30% 범위내에 있으며, 부정적인 집단에 속하는 엄마들은 82명으로, 총 점수에서 하위 27.6% 범위 내에 속한 엄마들이다(표 6)>.

표 6. 접촉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적 집단간 점수

접촉느낌	N	최고점수	최저점수	평균	편차
긍정집단	89	42	36	37.82	1.749
부정집단	84	26	6	22.49	4.246

표 5. 불안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 점수

불안	N	최고점수	최저점수	평균	편차
낮은 집단	81	25	0	22.84	3.586
높은 집단	84	63	31	36.00	5.841

긍정적인 느낌을 갖은 엄마들은 부정적인 엄마들보다 39가지 유형 중 9가지의 접촉 유형을 더 자주 사용하였다. 즉 머리 쓰다듬기,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안고 빙글빙글 돌기,

표 5-1. 불안 정도에 따른 접촉 유형 간 차이

접촉 유형	집단 (%)		Chi-Square Test		
	낮은 집단	높은 집단	$\chi^2$	자유도	유의도
뽀뽀하기	96.3	95.2			1.000
볼 쓰다듬기	88.9	90.5	.112	1	.737
머리 쓰다듬기	92.6	90.5	.238	1	.626
들어올렸다 내리기	95.1	91.7	.764	1	.382
살짝 꼬집기	54.3	57.1	.133	1	.715
간질이기	88.9	91.7	.363	1	.547
꼭 안기	92.6	92.9	.004	1	.948
살포시 안기	88.9	88.1	.025	1	.873
흔들기	85.2	82.1	.279	1	.597
찌르기	45.7	50.0	.309	1	.579
움켜잡기	42.0	50.0	1.069	1	.301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86.4	85.7	.017	1	.896
마사지/지압	93.8	83.3	4.457	1	.035*
엉덩이 두드리기	97.5	90.5			.099
물기	70.4	70.2	.000	1	.985
안고 빙글빙글 돌기	71.6	69.0	.129	1	.719
발등에 올리고 걷기	39.5	36.9	.118	1	.731
찰싹 때리기	39.5	51.2	2.271	1	.132
잡아끌기	45.7	54.8	1.361	1	.243
업기	86.4	89.3	.318	1	.573
등/배 만지고 토닥토닥하기	93.8	91.7	.285	1	.593
얼굴 맞대고 코비비기	86.4	78.6	1.753	1	.185
이마대고 비비기	79.0	57.1	9.045	1	.003**
목마 태우기/무릎 태우기	65.4	53.6	2.405	1	.121
손발 만지기	93.8	89.3	1.095	1	.295
배위에 앉히기	96.3	90.5	2.245	1	.134
볼/얼굴 대고 비비기	85.2	77.4	1.646	1	.199
귀 만지기	81.5	73.8	1.395	1	.238
끌어안고 뛰어다니기	66.7	56.0	1.994	1	.158
코 만지기	80.2	67.9	3.285	1	.070*
다리에 올려 비행기 태우기	74.1	77.4	.246	1	.620

물구나무 태우기	30.9	32.1	.031	1	.860
몸에 입대고 바람불어 소리내기	91.4	86.9	.841	1	.359
말 태우기	25.9	21.4	.462	1	.497
몸으로 미끄럼 태우기	28.4	25.0	.243	1	.622
안고 흔들기	81.5	66.7	4.697	1	.030*
안고 뒹굴기	60.5	57.1	.191	1	.662
몸을 긁어 주기	53.1	45.2	1.016	1	.313
꼭 쥐기	43.2	50.0	.764	1	.382

\* $p < .05$ , \*\* $p < .01$ , \*\*\* $p < .001$

이마대고 비비기, 손발 만지기, 몸에 입대고 살포시 안기나, 볼/얼굴 대고 비비기 등도 소리내기 등은  $p < .05$  수준에서, 안고 뒹굴기  $marginal$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표 6-1). 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이 외에도

표 6-1. 느낌에 따른 접촉 유형 간 차이

접촉유형	집단		Chi-Square Test		
	긍정적 집단	부정적 집단	$\chi^2$	자유도	유의도
뽀뽀하기	96.6	91.5			.198
볼 쓰다듬기	89.0	82.9	1.776	1	.183
머리 쓰다듬기	95.5	86.6	4.244	1	.039*
들어올렸다 내리기	96.6	91.5			.198
살짝 꼬집기	52.8	56.1	.186	1	.666
간질이기	91.0	91.5	.011	1	.917
꼭 안기	94.4	89.0	1.630	1	.202
살포시 안기	92.1	82.9	3.359	1	.067*
흔들기	82.0	75.6	1.056	1	.304
찌르기	43.8	48.8	.422	1	.516
움켜잡기	42.7	47.6	.408	1	.523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89.9	79.3	3.733	1	.053*
마시지씨압	92.1	85.4	1.980	1	.159
영덩이 두드리기	96.6	90.2	2.891	1	.089
물기	67.4	68.3	.015	1	.902
안고 빙글빙글 돌기	78.7	63.4	4.847	1	.028*
발등에 올리고 걷기	40.4	36.6	.269	1	.604
찰싹 때리기	50.6	41.5	1.421	1	.233
잡아끌기	40.4	43.9	.209	1	.648
업기	88.8	85.4	.440	1	.507
등/배 만지고 토닥토닥 하기	94.4	87.8	2.307	1	.129
얼굴 맞대고 코 비비기	86.5	76.8	2.699	1	.100
이마대고 비비기	77.5	63.4	4.109	1	.043*
목마 태우기/무릎 태우기	60.7	57.3	.199	1	.656
손발 만지기	94.4	85.4	3.875	1	.049*
배 위에 앉히기	92.1	89.0	.487	1	.485
볼/얼굴 대고 비비기	86.5	75.6	3.338	1	.068*
귀 만지기	79.8	73.2	1.039	1	.308

끌어안고 뛰어 다니기	59.6	51.2	1.200	1	.273
코 만지기	79.8	69.5	2.388	1	.122
다리에 올려 비행기 태우기	76.4	72.0	.443	1	.506
물구나무 태우기	34.8	28.0	.909	1	.340
몸에 입대고 바람불어 소리내기	92.1	81.7	4.140	1	.042*
말 태우기	28.1	18.3	2.286	1	.131
몸으로 미끄럼 태우기	33.7	24.4	1.791	1	.181
안고 흔들기	77.5	70.7	1.032	1	.310
안고 뒹굴기	66.3	46.3	6.920	1	.009**
몸을 긁어 주기	55.1	43.9	2.124	1	.145
꼭 쥐기	52.8	40.2	2.706	1	1.00

\*  $p < .05$ , \*\*  $p < .01$ , \*\*\*  $p < .001$

### 자아 개념에 따른 접촉 유형에서의 차이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접촉 유형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어머니들은 점수에서 상위 27.9% 범위 내에 있으며, 낮은 집단의 어머니들은 점수에서 하위 27.3% 범위 내에 속한 어머니들이다(표 7).

표 7.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 점수

자아개념	N	최고점수	최저점수	평균	편차
낮은 집단	81	113	84	105.54	6.870
높은 집단	83	149	128	136.10	5.682

높은 자아개념을 갖은 어머니들은 낮은 어머니들보다 39가지 유형 중 17가지 접촉 유형을 더 자주 사용하였다. 즉 움켜잡기, 배위에 앉히기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살포시 안기, 마사지/지압하기, 안고 빙글빙글 돌기, 발등에 올리고 걸기, 손발 만지기, 몸 긁어주기, 안고 뒹굴기, 꼭 쥐기 등은  $p < .05$  수준에서, 불/얼굴대고 비기기, 끌어안고 뛰어다니기 등은  $p < .01$ , 수준에서, 그리고 얼굴 맞대고 코비기기, 이마대고 비비기, 귀 만지기, 코 만지기, 안고 흔들기 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했다(표 7-1).

표 7-1. 자아개념에 따른 접촉 유형 간 차이

접촉 유형	집단 (%)		Chi-Square Test		
	낮은 집단	높은 집단	$\chi^2$	자유도	유의도
뽀뽀하기	93.8	96.4			.493
불 쓰다듬기	90.1	94.0	.834	1	.361
머리 쓰다듬기	91.4	95.2	.957	1	.328
들어올렸다 내리기	92.6	97.6			.165
살짝 꼬집기	59.3	54.2	.425	1	.515
간질이기	93.8	92.8	.073	1	.787
꼭 안기	90.1	96.4	2.569	1	.109
살포시 안기	85.2	95.2	4.652	1	.031*
흔들기	77.8	85.5	1.653	1	.198
찌르기	48.1	49.4	.026	1	.873
움켜잡기	37.0	51.8	3.621	1	.057*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82.7	91.6	2.876	1	.090

마사지/지압	86.4	96.4	5.214	1	.022*
영덩이 두드리기	91.4	97.6			.097
물기	63.0	67.5	.367	1	.545
안고 빙글빙글 돌기	64.2	80.7	5.623	1	.018*
발등에 올리고 걷기	30.9	49.4	5.855	1	.016*
찰싹 때리기	51.9	41.0	1.954	1	.162
잡아끌기	40.7	45.8	.425	1	.515
업기	82.7	83.1	.005	1	.944
등/배 만지고 토닥토닥하기	90.1	94.0	.834	1	.361
얼굴 맞대고 코비비기	71.6	92.8	12.617	1	.000***
이마대고 비비기	58.1	83.1	12.483	1	.000***
목마 태우기/무릎 태우기	54.3	66.3	2.444	1	.118
손발 만지기	85.2	96.4	6.189	1	.013**
배위에 앉히기	88.9	96.4	3.397	1	.065*
볼/얼굴 대고 비비기	76.5	91.6	6.935	1	.008**
귀 만지기	61.7	86.7	13.469	1	.000***
끌어안고 뛰어다니기	48.1	71.1	8.968	1	.003**
코 만지기	58.0	83.1	12.483	1	.000***
다리에 올려 비행기 태우기	69.1	78.3	1.785	1	.182
물구나무 태우기	29.6	39.8	1.855	1	.173
몸에 입대고 바람불어 소리내기	86.4	91.6	1.111	1	.292
말 태우기	21.0	30.1	1.795	1	.180
몸으로 미끄럼 태우기	25.9	31.3	.585	1	.445
안고 흔들기	64.2	88.0	12.762	1	.000***
안고 뒹굴기	54.3	71.1	4.931	1	.026*
몸을 굽어 주기	43.2	60.2	4.763	1	.029*
꼭 쥐기	38.3	54.2	4.192	1	.041*

\* $p < .05$ , \*\* $p < .01$ , \*\*\* $p < .001$

### 어머니의 내적 변인 간 상관관계

우울, 불안, 양육 스트레스 간에, 그리고 신체접촉에 대한 느낌과 자아개념 간에 각각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양육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신체접촉에 대한 느낌, 자아개념 간에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표 8).

### 논 의

본 연구는 6개월 된 영아의 어머니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접촉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했으며,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내적 심리적 상태에 따라 영아에게 사용하는 신체접촉 유형에서

표 8. 어머니의 내적 변인 간 상관

	신체 접촉에 느낌	양육스트레스	자아개념	우울	불안
신체접촉에 대한 느낌					
양육스트레스		-.211**	.307**	-.306**	-.158*
자아개념			-.525**	.477**	.486**
우울				-.502**	-.281**
불안					.530**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첫 번째로, 표 2에서 보듯이 어머니들은 장난치는 상황이나, 노는 상황에서 많은 유형의 접촉을 사용했다. 특히 주로 행동의 강도가 큰 접촉 유형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런 거친 접촉 유형 이외에도 부드럽고 양육적인 접촉 유형들이 동시에 사용되었다. 뽀뽀하기가 애정을 표현(23.6%)하는 상황 외에도 장난칠 때(25.6%), 놀 때(18.2%) 또는 일상적인 상황(22.6%)에서 사용되었는데, 아마 영아를 돌보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양육적인 접촉과 거친 접촉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비해 달래는 상황, 잠재우는 상황, 그리고 목욕시킨 후에는 주로 양육적인 신체접촉 유형이 사용되었다. 이런 유형은 안전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형들이다. 그러나 안전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친 접촉인 간질이기, 찌르기, 물기 등이 장난치는 때나 노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상호작용 맥락을 고려한 접촉 유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칭찬하는 상황, 책을 읽어 주는 상황 또는 수유 상황에서는 극소수의 어머니들만이 접촉유형을 사용했다. 생후 6개월 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접촉 유형을 알아 본 것이므로, 책을 읽어 주는 상황이나 칭찬하는 상황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나타난 결과 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유 할 때,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자주 신체 접촉을 한다(Weiss, Wilson, Hertenstein, & Campos, 2000).

본 연구에서는 수유 상황에서 만지거나 쓰

다듬는 유형이 10%미만 사용되었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모유가 아닌 분유를 영아 혼자 낚힌 상태에서 수유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안고 수유 하는 상태에서 아기를 구태여 만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연구, 가령, 수유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영아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우유병을 물리게 하면서 수유를 한다면, 이는 분명 바람직한 양육 장면은 아닐 것이다.

둘째로 우울 성향이 낮은 어머니들이 높은 어머니들보다 애정스런 양육적 접촉 유형인 머리 쓰다듬기, 엉덩이 토닥이기, 얼굴/이마대고 비기기, 손발 만지기 등을 더 자주 사용했지만, 선행연구(Fergus, Schmidt & Pickens, 1998; Field, et al., 1990; Stepakoff et al., 2000; Herrera, et al., 2003)에서 처럼, 우울이 높은 어머니가 찌르기, 잡기, 쥐어막기, 들어 올렸다 내리기 등을 더 사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우울 성향이 낮은 어머니들이 높은 어머니들보다 활동적인 접촉 유형인 안고 흔들기를 더 자주 사용했다. 결국 우울이 낮은 어머니들이 부드러운 접촉 유형과 행동력이 있는 접촉 유형을 동시에 더 자주 사용했다. 이는 광금주 등(2004)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광금주와 김수정 연구(2004)에서도 우울 성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양육적 접촉인 뽀뽀하기, 쓰다듬기, 마사지를 그리고 거친 접촉인 꼬집기 등을 동시에 더 자주 사용했다.

본 연구는 6개월 된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린 영아에게 찌르기나 간질이기, 쥐어막기 등의 거친 접촉 유형을

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최근 연구 (Herrera, et al., 2003)에서는 10개월 된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을 때, 우울이 높은 어머니가 들어올렸다 내리기의 접촉 유형을 더 많이 사용했다. 따라서 12개월 이후부터 걸음마기를 가진 엄마의 우울 상태에 따른 접촉 유형에서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가 높은 어머니보다 애정 어린 접촉 유형인 마사지와 행동력이 있는 접촉 유형인 들어 올렸다 내리기, 흔들기, 안고 흔들기 등을 동시에 더 많이 사용했다. 선행연구(곽금주, 김수정, 2004)에서도 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들이 들어 올렸다 내리기와 뽀뽀하기 등, 양육적 접촉과 거친 접촉을 함께 더 자주 사용했다. 이런 연구 결과로 볼 때,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다양한 접촉 자극을 준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들은 영아 발달에 부정적일 수 있는 거친 접촉을 더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어머니라도 자녀를 거칠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간질이기, 찌르기, 찰싹 때리기 잡아끌기 등의 거친 접촉을 더 사용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넷째로, 불안 성향이 낮은 어머니가 높은 어머니보다 양육적인 접촉 유형을 더 자주 사용했다. 불안 성향이 높은 어머니들은 꼬집기, 간질이기, 찌르기, 움켜잡기, 찰싹 때리기 등의 접촉을 조금 더 사용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불안이 낮은 어머니들의 접촉 유형과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불안이라는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 그 자체가 양육에 뚜렷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낮은 불안 성향을 보이는 어머니들이 더 애정 어린 양육적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볼 때, 높은 불안 성향이 양육에 긍정적인 요인은 아님이 분명하다.

다섯째로, 신체접촉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머니들보다 다양한 접촉유형을 자주 사용했다. 애정스런 유형과, 또는 강도 있는 거친 접촉 등 다양한 유형의 접촉을 영아에게 했다. 신생아의 뇌는 엄마와의 신체접촉으로부터 오는 감각과 운동 자극을 통해 발달한다 (Larsson, 1994).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접촉 유형은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신체접촉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특별히 발달에 부정적인 접촉 유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달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자극을 영아에게 덜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가 느끼는 접촉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자녀에게 하는 접촉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 수 있다 (Weiss, Wilson, Hertenstein, & Campos, 2000).

여섯째로, 자아개념이 높은 어머니가 낮은 어머니보다 가장 광범위한 신체접촉 유형을 사용했다. 특히 영아들과 놀 때 또는 장난치는 상황에서 행동력 있는 접촉 유형들을 사용했으며, 안기나 마사지와 같은 양육적 접촉도 사용했다. 다른 어떤 심리적 변인보다도 어머니의 자아 개념이 높을수록 접촉 유형을 가장 다양하게 자녀에게 사용했다. 이런 맥락에서 자아개념이 낮은 어머니들은 자녀의 발달에 다양한 촉각적 자극을 잘 제공하지 못할 수 있음이 제기된다. 그러나, 자아개념이 높은 어머니들이 영아발달에 유익한 접촉 유형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발달

에 필요한 다양한 자극이 어머니의 신체접촉을 통해 영아에게 전달된다 해도, 상황에 적절한 신체접촉 유형에 대한 사용여부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내적 변인들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자아개념과 접촉에 대한 느낌 간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아개념이 높은 어머니들이 신체접촉에 대한 느낌도 긍정적일 수 있다. 또한 우울, 불안, 양육 스트레스 간에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우울이 높은 어머니들은 불안도 높은 성향을 보이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았다. 그러나 자아개념과 신체접촉에 대한 느낌 각각과 양육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개념과 신체접촉에 대한 느낌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관계적 맥락에서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들이 자아개념도 낮고 신체접촉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이는 양육 현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내적 변인들의 성향을 동시에 가진 어머니에 대한 신체접촉을 초점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머니의 높은 자아개념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부적 정서를 최소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양육 현장에서 어머니들로 하여금 높은 자아개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높은 자아개념을 가진 어머니들이 낮은 자아개념을 가진 어머니들보다 17가지 정도의 접촉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자아개념은 다른 어떤 심리적 변인보다도 신체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로 신체접촉과 상황과의 연계성에서 내적 변인 간 유형에서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내적 변인에 따라 접촉 유형에서의 차이만을 알아보았다. 따라서 상황과 접촉 유형에서의 어머니의 내적 변인 간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좀더 분명한 차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6개월 된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린 영아에게 짜르거나 간질이기, 쥐어박기 등의 거친 접촉 유형을 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따라서 12개월 이후부터 걸음마기를 가진 어머니의 내적 상태에 따른 접촉 유형에서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발달에 따라 변화하는 유형 간 차이와 어머니의 변인에 따른 차이를 동시에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세 번째로, 발달에 따라 상황과 유형 간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연령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접촉 유형이 더 자주 사용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발달에 따른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위에서 연구된 5가지 심리적 변인의 부정적인 요인을 가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신체접촉 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내적 변인에 대한 탐색을 통해,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연구도 요구된다.

다섯 번째로, 본 연구는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실시하여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실제 양육 현장에서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접촉 유형에 대한 관찰을

통해 좀더 보완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전히 신체접촉을 측정할 표준화된 코딩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질문지를 통해서나마 한국 영아의 양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접촉 유형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것에 의미를 두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나 신체 접촉에 대한 효과를 담은 교육용 비디오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어머니와의 다양한 신체접촉이 영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접촉은 영아를 돌보는 여러 행동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특히 영아기 신체접촉은 엄마-영아 간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어머니에게 인식시켜, 발달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접촉 사용을 영아기의 양육 지침으로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금주, 김수정 (2004). 어머니의 내적 변인에 따른 영아와의 신체접촉 유형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18.
- 구미향 (1999). 영아기 애착관련 변인과 모성행동 특성 분석. 성균관대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수정, 곽금주 (2003). 의사전달로서의 영아기 신체접촉.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10(1), 51-73.
- 김수정, 곽금주, 장유경, 성현란, 심희옥 (2003). 영아기 발달에 따른 한국 어머니의 신체접촉 양상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75-97.
- 박응임 (1995). 영아-어머니 간의 애착 유형과 그 관련 변인. 이화여대 박사학위청구논문.
- 서수균 (1996). 자기집중적 주의, 실제 자기개념 및 자기 안내자의 선호성을 고려한 자기 불일치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결자 (1993). 저체중 출생아와 정상아의 모아상호작용 변화 양상. 서울대 박사학위청구논문.
- 최순영, 김수정 (1995). 인간의 사회적 성격적 발달. 서울: 학지사.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Cohn, J. F., & Tronick, E. (1989). Specificity of infants' response to mothers' affective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8, 242-248.
- Fergus, E., L., Schmidh, J., & Pickens, J. (1998). *Touch during mother-infant interactions: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Poster presented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Infant Studies, Atlanta, GA-April.
- Fergus, E., L., Pickens, J., & Schmidh, J. (1998). Touch during mother-infant interaction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Vol., 21*, p. 405.
- Field, T., Healy, B., Goldstein, S., & Guthertz, M. (1990). Behavior state matching and synchron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of nondepressed versus depressed dyad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7-14.
- George, C., & Solomon, J. (1996). Representational models of relationships: links between caregiving and attach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7, 198-216.
- Greenoug, W. T. (1990). Brain storage of information from cutaneous and other modalities in development and adulthood. In K. E. Barnard & T. B. Brazelton (Eds.), *Touch: The foundation of experience: Full revised and expanded proceedings of Johnson & Johnson Pediatric*

- Round Table X* (pp. 97-126),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Greenough, W., Hwang, H., & Gorman, C. (1985). Evidence for active synapse formation or altered postsynaptic metabolism in visual cortex of rats reared in complex environment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82, 4549-4552.
- Green, A. (1998). Childhood sexual and physical abuse. In Wilson J, Raphael, B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Traumatic Stress Syndromes* (pp. 577-592). Plenum Press: New York.
- Grossman, K., Grossman, K. E., Gottfried, S., Suess, G., & Unzner, L. (1985). Maternal sensitivity and newborns' orientation responses as related to quality of attachment in northern German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233-256.
- Herrera, E., Reissland, N., & Shepherd, J. (2003). Maternal touch and maternal child-directed speech: effects of depressed mood in the postnatal period.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11.
- Kaitz, M., Lapidor, P., Bronner, R., & Eidelman, A. I. (1992). Parturient women can recognize their infant by touch. *Developmental Psychology*, 28, 35-39.
- Kempermann, G., Kuhn, H., & Gage, F. (1997). More hippocampal neurons in adult mice living in an enriched environment. *Nature*, 386, 493-495.
- Kolko, D. (1992). Characteristics of child victims of physical violence: Research findings and clinical implication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7, 244-276.
- Larsson, K. (1994). The psychobiology of parenting in mammal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5, 97-143.
- Leyendecker, B., Lamb, M. E., Fracasso, M. P., & Scholmerich, A. (1997). Playful interaction and the antecedents of attachment: a longitudinal study of Central American and European mothers and infants. *Merrill-Palmer Quarterly*, 43, 24-47.
- Main, M. (1990). Parental aversion to infant-initiated contact is correlated with the parent's own rejection during childhood: The effects of experience on signals of security with respect to attachment. In K. E. Barnard & T. B. Brazelton (Eds.), *Touch: The foundation of experience: Full revised and expanded proceedings of Johnson & Johnson Pediatric Round Table X. Clinical infant reports* (pp. 461-495).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ain, M., & George, C. (1985). Response of abused and disadvantaged toddlers to distress in arguments: A study in the day care set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1 (3), 407-412.
- Montagu, A. (1986). *Touching: The human significance of the skin* (3rd ed.), New York: Harper & Row.
- Myslivecek, J. (1991). Developmental physiology and pathophysiology of behavior and nervous functions. *Physiological Research*, 44, 169-181.
- Network, N. E. C. C. R.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 860-879.
- Nudo, R., Milliken, G., Jenkins, W., & Merzenich, M. (1996). Use-dependent alterations of movement representations in primary motor cortex of adult squirrel monkeys. *Journal of Neuroscience*, 16, 785-807.
- Peláez-Nogueras, M., Field, T., Gewirtz, J. L., Cigales, M., Gonzalez, A., Sanchez, A., & Richardson, S. C. (1997). The effects of systematic stroking

- versus tickling and poking on infant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69-178.
- Perry, B., & Pollard, R. (1998). Homeostasis, stress, trauma and adaptation: A neurodevelopmental view of childhood trauma.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7: 33-51.
- Stack, D. M., LePage, D. L., Hains, S., & Muir, D. W. (2001). *Differential touch as a function of instruction during mother-infant interactions: Application of the Caregiver-Infant Touch Scale (CITS)*. Manuscript under revision.
- Schore, A. (1998). Early Trauma and the Development of the Right Brain. *Paper Presented at the Hincks-Dellcrest Institute Conference on Trauma*, Toronto, Canada. Sense, *Human Development*, 45, 95-99.
- Stack, D. M., & LePage, D. E. (1996). Infants' sensitivity to manipulations of maternal touch during face-to-face interactions. *Social Development*, 5, 41-55.
- Steele, H., Steele, M., & Fonagy, P. (1996). Associations among attachment classifications of mother, fathers, and their infants. *Child Development*, 67, 541-555.
- Stepakoff, S., Beebe, B., & Jaffe, J. (2000). *Mother-infant tactile communication at four months: Infant, gender, maternal ethnicity, and maternal depression*. Post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ant Studies, Brighton, England.
- Suomi, S. (1990). The role of tactile contact in rhesus monkey social development. In Barnard, K., & Brazelton, T. B. (Eds.), *Touch: The Foundation of Experience* (pp. 170-184).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Madison, CT.
- Tronick, E. Z. (1995). Touch in mother-infant interaction. In T. M. Field (Eds.), *Touch in early development* (pp. 53-65). Mahwah, NJ: Erlbaum.
- Tronick, E. Z. (1989). Emotions and emotional communication in infants. *American Psychologist*, 44, 112-119.
- Turkewitz, G., & Kenny, P. (1982). Limitations on input as a basis for neural organization and perceptual development: A preliminary theoretical statement. *Developmental Psychobiology*, 15, 357-368.
- Walsh, A. (1991). *The Science of Love: Understanding Love and Its Effects on Mind and Body*. Prometheus Books: Buffalo, NY.
- Weinberg, M. K., & Tronick, E. Z. (1994). Beyond the face: An empirical study of infant affective configurations of facial, vocal, gestural, and regulatory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503-1515.
- Weiss, S. J., Wilson, P., St. John Seed, M., & Paul, S. M. (2001). Early tactile experience of low birth weight children: Links to later mental health and social adaptati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0, 93-115.
- Weiss, S. J., Wilson, O., Hertenstein, M. J., & Campos, R. (2000). The tactile context of a mother's caregiving: Implications for attachment of low birth weight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3, 91-111.

## The difference in touch patterns of infants at 6 months: on the mothers' level of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nxiety, feeling of touch and self-concept

Suchung Kim

The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Keumjoo Kwak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t types of touch depending on the mothers' internal states and the correlation among the internal variables 450 mothers of babies, 6-months-old, were involved. The differences in touch patterns to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nxiety, the feeling of touch, and self-concept were analys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others who had low level of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nxiety used more various touch patterns than the mother who had high level of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nxiety. Also, those who had positive feelings of touch and self-concept used more diverse touch patterns than those who had negative feeling of touch and self-concept. That is, the optimistic mothers used both active touch and gentle touch.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self-concept and the feeling of touch is positively correlated. Mothers' level of depression, anxiety and parenting stress are positively correlated. However, each self-concept and feeling of touch is negatively correlated to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nd anxiety. There, it is supposed that the group of positive self-concept are likely to be positive to the touch, and to feel less depression, stress, and anxiety. The positive self-concept has effect on the touch that plays important role in infancy development. So, helping mothers to have positive self-concept is critical issues in nursing.

*Keywords: touch patterns,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nxiety, the feeling of touch, self-concept*